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3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50 인간극장	00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기획 굿모닝 대한민국 2부	1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민주당 김한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민주당 김한길 대표 신년기자회견 3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지구촌 뉴스	30 MBC여성토론 위드	00 민주당 김한길 대표 신년 기자회견 30 SBS 뉴스
11	50 부부극장 콩깍지(재)	20 TV, 책을 보다(재)	15 사랑의 가족 45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재)	35 컬투의 베란다쇼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 12	25 VJ특공대(재)	00 MBC 정오 뉴스 20 TV속의 TV	00 SBS12뉴스 30 신년특집 KBC 열린토론회(재)
1	00 뉴스특보 1~2부	00 TV아고라(재) 50 콘서트 필(재)	35 힐링 투어 아생의 발견(재)	20 MBC 네트워크 특선 〈역사다큐 마한 귀향〉	30 피우자 민들레
2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직언직설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키즈 CSI 과학수사대 40 헬로 키즈 룰루랄라 동물여행(재)	10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재)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00 겨울방학 특선 앙코르 〈아프리카 제6편〉(재) 55 튼튼 생활 체조(재)	25 고고 이야기 탐험대(재) 55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안녕 자두야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MBC 가요베스트	05 씨네포트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그때 그 사람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오 마이 베이비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가요무대 55 문/화/산/책 포플러	00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	00 월화 특별기획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11	00 이영돈·신동엽 젠틀맨(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공간 다큐 〈그곳〉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10 컨츄리 선수권대회 동네 한바퀴(재)	30 문화책갈피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닥터 후〉	15 MBC 뉴스24 45 스포츠 특선 〈2014 용평컵 FIS 국제 알파인 스키〉	35 나이트 라인

EBS

06:10 다문화 고부 열전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곰디와 친구들
09:10 두다다쿵
09:20 부모 〈딸기농장에 갔어요〉
10:00 한국기행
10:20 요리비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최진흔의 맛 보장! 빠르고 쉬운 레시피 - 매생이 굴국과 돼지고기 된장구이〉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3:10 겨울방학생활 1학년
13:30 겨울방학생활 3학년
13:50 겨울방학생활 5학년
14:10 배움너머(1)
14:15 팅가팅가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와글와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곰디와 친구들(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 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30 피둘리팜
19:50 모피와 친구들
20:00 EBS뉴스
20:20 요리비전
20:50 세계테마기행 〈나일 강의 원류를 찾아서〉
21:30 한국기행 〈무진장-겨울 덕유산 꽃 피우다〉
21:50 다큐프라임 〈학교의 발견 1부 뉴튼, 학교를 만나다〉
22:45 달라졌어요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23:40 생방송 EBS교육 대토론

EBS플러스1

00: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2)〉
00:50 〃 〈Basic Grammar〉
01:40 수능 길잡이 〈독서〉
02:30 〃 〈문학〉
03:2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4:10 〃 〈수학Ⅰ〉
05:00 〃 〈영어 독해 구문편〉
05:50 〃 〈영어 독해 유형편〉
06:4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2)〉
07:30 〃 〈Basic Grammar〉
08:20 2014 고등 예비과정 〈국어〉
09:10 〃 〈수학Ⅰ〉
10:00 〃 〈영어〉
10:50 2014 수능개념 〈영어 중급〉
11:40 2014 고등 예비과정 〈국어〉(재)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 〈수학Ⅰ〉(재)
14:00 〃 〈영어〉(재)
15: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구문편〉(재)
16:00 2014 수능개념 〈국어 A형〉(재)
17:00 〃 〈영어 초급〉(재)
18:00 수능 길잡이 〈독서〉(재)
19:00 〃 〈문학〉(재)
20:00 〃 〈미적분과 통계기본〉(재)
21:00 〃 〈수학Ⅰ〉(재)
22:00 2014 수능개념 〈영어 중급〉(재)
23:00 세계의 아이들
23:5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EBS플러스2

07:00 하하볼의 상상놀이터(1)~(3)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검정고시 강좌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TV 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10:30 〃 〈영어①〉
11:10 〃 〈역사①〉
11:50 중학 예비과정 〈국어③④〉
12:30 〃 〈영어②〉
13:10 TV 중학 1학년 〈역사〉(재)
13:50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회〉
14:30 〃 〈과학〉
15:10 스쿨랜드
15:20 초등 1년 EBS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 3년 EBS 겨울방학생활
16:00 초등 5년 EBS 겨울방학생활
16:20 초등 개념 잡기 〈국어〉
16:5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17:20 중학예비과정 〈영어②〉(재)
18:00 TV 중학 1학년 〈도덕②〉
18:40 원더풀 사이언스(1)
19:30 원더풀 사이언스(2)
20:20 EBS 역사특강
21:10 스쿨랜드(재)
21:20 중학 개념 끝장내기 〈국어〉
22:00 중3 예비과정 〈수학 3-1〉
22:40 중학 3학년 〈영어〉
23:20 〃 〈국어〉
24:00 EBSe 생활영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따뜻한 말은 '고마워'"

김지수, SBS '따뜻한 말 한마디'서 절절한 눈물 연기

"요즘 연기에서 어떻게 울까 많이 고민해요. 울음이 더 깊고 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울면 울음이 얕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으로 울컥하며 울다 보니 때로는 실제 화병에 걸린 기분이 들기도 해요."

SBS 월화극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송미경 역을 맡아 열연하는 배우 김지수(42·사진)는 극중에서 여러모로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다. 믿었던 남편은 배신하고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괴롭힌다.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수는 "촬영을 하다가 실제로도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칠 때가 많다"고 고백했다.

김지수는 남자 주인공 유재학(지진희 분)의 아내 전업주부 송미경 역할을 맡았다. 재학은 나은진(한혜진 분)과 불륜을 저질러 미경에게 아픔을 준다.

"진희 오빠를 보면 울컥울컥해요. 촬영을 하다가 오빠가 내일 촬영 없다고 하면 '어디 가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라며 장난도 치죠. (웃음) 종종 오빠는 남자 입장을, 저는 여자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나눌 때도 있어요."

그는 "재학이 고통스럽기를 바라는 시청자도 많은 것으로 안다(웃음)"며 "극중 이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들이 여러 일을 거치며 더 성숙한 사람들로 마지막에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소신을 전했다.

송미경은 모든 일에 완벽한 여성이지만, 남편의 불륜을 알면서 그가 쌓아올린 삶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실제 그의 모습은 어떨까.

"미경이는 완벽하다기보다는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실제 저는 되게 '찌질'하고 '허당'일 때가 많아요. 다만 일할 때는 완벽하려는 기질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김지수는 극중 배다른 동생인 박서준(송민수 역)과 남다른 남매애를 보여주며 호평받고 있다. 최근 높이 평가하는 다른 후배 남자 배우가 없냐 물으니 '대세' 김수현을 들며 극찬했다.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열하는 장면을 봤는데 저 나이 배우에게서 어떻게 저런 깊은 울음이 나올까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런데 20년 후에는 얼마나 더 깊어질까 생각했죠."

주변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그도 결혼이 생각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소울메이트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결혼 여부가 제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가 생각하는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무엇일까.

"'고마워'가 최고인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더 잘해주고 싶어지고요. 사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맙다는 말만 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합뉴스

'변호인' 900만 관객 돌파…"불법유출에도 흥행질주"

역대 최고 히트작 '아바타' 보다 일주일 앞서

지난 11일 불법파일이유출된 '변호인'〈사진〉이 정식 개봉 25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투자배급사 NEW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근거로 '변호인'이 12일 오전 11시께 9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식 개봉 25일 만에 900만을 넘긴 '변호인'의 흥행속도는 작년 최고 히트작 '7번 방의 선물'(1281만 명)보다 이틀 빠르고, '광해, 왕이 된 남자'(1231만 명)보다도 6일 앞선다. 역대 최고 히트작 '아바타'(1362만 명)보다는 일주일 빠르다. 정식 개봉 전날 오후 5시부터 개봉한 점을 고려해 개봉 일수를 잡더라도 이들 영화보다는 각각 1일, 5일, 6일 앞선다.

배우 송강호는 '설국열차'(934만 명), '관상'(913만 명)에 이어 지난해 출연작 세 편이 모두 900만 명을 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편, '변호인'의 영상 파일이 지난 11일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출됐다. NEW 마케팅팀의 박준경 팀장은 "실제로 파일이 거래되는 유료 웹하드에선 '변호인' 불법 다운로드가 중지됐다"며 "다만, 개인끼리 주고받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만 돌파를 목전에 둔 영화가 불법 유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화질이 떨어지는 '직캠' 영화를 보려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불법파일이 노출된 지난 11일에도 33만 7천 명(매출액 점유율 32.6%)을 모으며 14만 5천 명을 동원한 '용의자'(14.0%)를 제치고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NEW는 '변호인'이 오는 18~19일 1000만 관객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3일(음 12월 13일 甲申)

子 36년생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몹시 혼란스럽겠다. 48년생 자세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72년생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 84년생 비슷한 것은 똑같이 여겨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3, 20

丑 37년생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랬다. 49년생 이바지하라. 61년생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다. 73년생 쉽게 장담했다가는 머지않아서 난처해질 것이다. 85년생 서로 교환해 보자. 행운의 숫자 : 68, 92

寅 38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0년생 피하지 않으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리라. 62년생 가까운 이와 소원함이 보이나 머지않아 해소되겠다. 74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6, 74

卯 39년생 쌓였던 불만이 봄 눈 녹듯 하겠다. 51년생 영달에 이르는 길은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니라. 63년생 자료부터 살펴봐야 명료한 판단이 선다. 75년생 약속만 잘 지킨다면 다른 국면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19, 11

辰 40년생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야만 한다. 52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64년생 화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다. 76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있노라면 반전되리라. 행운의 숫자 : 82, 57

巳 41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체 하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53년생 확고부동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5년생 객관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77년생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37, 83

午 42년생 겉보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도다. 54년생 속단은 금물이니라. 66년생 일시적인 충동심리에서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78년생 잘 챙겨둬야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89

未 43년생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리라. 55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이르다. 67년생 반복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79년생 정해진 수순대로만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다. 행운의 숫자 : 46, 38

申 44년생 모습과는 전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56년생 약간만 신경 써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68년생 불로 소득은 쉽게 나가느니라. 80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9, 04

酉 45년생 상대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57년생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 해둬야 할 바가 분명히 있도다. 69년생 말씨만 듣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81년생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9, 47

戌 46년생 여명에 밀려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라. 58년생 힘들이지 않고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70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탈할 것이다. 82년생 필요하다면 개의치 말고 조처하라. 행운의 숫자 : 48, 96

亥 47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리라. 59년생 오매불망 하던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83년생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73, 5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5연승에 맞붙을 새로운 고민은?

안녕하세요(KBS2 밤 11시10분) =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박준형, 리사, 정동하, 에일리. 4인방과 함께하는 '전국고민자랑'. 지난주 5연승을 차지한 '더이상 감추기 싫어요'에 새로운 고민들이 1승에 도전한다.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 아내보다 두살 많은데도 심하게 어려보여 함께 외출하면 사람들이 아들로까지 보는 덕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사연을 전한다. 두번째 사연은 흔기 꽉 찬 여동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자. 시집은 안가고 개, 고양이에 빠져 동물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혼을 안하겠다는 36살의 동생을 도와달라고 찾아왔다. 세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강릉의 휴대폰가게 점장. 매일 똑같은 노래를 하루종일 부르는 키 181cm의 꽃미남 직원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해준다.

꿈꾸는 어린 사물놀이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35분) = 신명나는 사물놀이 소리를 따라 찾아간 곳은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그림 속 세상 지역아동센터. 늘 흥겨움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32명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올해로 5년 째 이어져 오고 있는 사물놀이 프로그램은 센터 아이들만의 특별한 자랑거리이다. 사물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자신감도 향상했을 뿐 아니라 국악인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뛰어난 실력만큼이나 마음씨까지 착한 아이들, 얼마 전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배달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

세계테마기행(EBS 오후 8시50분) = 세계에서 가장 긴 6700㎞의 나일 강. 인류의 역사보다 오래 된 나일 강의 원류는, 우간다의 진자(Jinja)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수의 조그만 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진자에서 발원한 물은 빅토리아 나일이라고 이름 붙여진 물길을 따라, 북쪽으로 약 122㎞를 달려 거대한 파피루스 습지인 키오가 호수에 머무른다. 그러나 이 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광대한 물살이 에너지를 내뿜는 머치슨 폭포를 지나, 수단을 거쳐 이집트까지 장장 3개월을 흘러 드디어 나일 강이 된다.

문명이 발생했듯, 물이 있는 곳은 언제나 생명이 잉태된다. 나일 강의 원류를 따라 도착한 키오가 호수에도, 역시 풍요를 입은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다. 넉넉한 호수의 땅, 그 첫 번째 여정을 향해 우간다로 떠나보자.